

현안과 과제

■ 최근 수출 동향과 시사점
- 유가 상승의 기저효과는 끝났다

Executive Summary

■ 개요

최근 세계 수출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5월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4%를 기록했으며, 7개월 연속 증가, 5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달성하는 등 지난 2년간의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다. 이에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진단해보기 위해 수출 증가를 가격 및 물량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수출 회복의 가격 및 물량 효과 분석

(전체) 2017년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가격 상승 효과이며 물량 증가 효과 역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출금액지수로 본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4월 현재 약 16.8%로,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부분이 6.8%p,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10.1%p이다.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60%,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약 40%로 분석된다.

(주력 산업별) 스마트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7년 1~4월 주력 산업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는 약 3.8% 증가했는데,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p로 수출 증가율 중 물량 증가 효과 약 92%에 해당한다. 일반기계는 동기간 약 18.8% 증가했는데,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9.8%p에 달하며, 가격은 하락하여 오히려 수출증가율을 -1.1%p 감소시켰다. 석유제품 수출은 약 46.6% 증가했는데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46.2%p로 압도적이었다. 석유화학 수출은 약 23.0%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8.3%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4.7%p에 달한다. 철강 수출은 약 23.6%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4.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8.9%p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약 48.8%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3.1%p이었다. 스마트폰 수출은 약 -39.6% 감소했는데, 물량 감소에 따른 감소폭이 -33.1%p, 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은 -6.5%p에 달한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약 31.9%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2%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30.7%p이었다. 즉,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석유제품, 디스플레이는 수출 물량 증가세는 정체된 가운데, 큰 폭의 수출 가격 상승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자동차, 일반기계는 수출 가격이 소폭 하락 혹은 불변인 가운데, 큰 폭의 수출 물량 증가가 수출을 증가시켰다. 스마트폰은 수출 물량 감소와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진행 중이다.

■ 최근 수출 경기 회복의 배경 및 전망

(수출 회복 배경)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한 가운데,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 및 주력 산업들의 단가 상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이 수출 가격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신흥국 경기 개선으로 신흥국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 또한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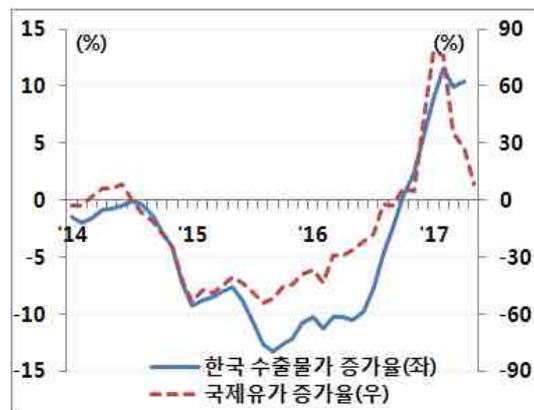
(전망)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 종료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이 수요 회복보다는 OPEC의 감산 영향이 크고,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 물량 증가세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가격 상승 요인을 압도할 정도의 강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월 수출 증가율이 13.4%로 4월의 24.1% 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화되는 모습 또한 하반기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근거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출은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 종료로 상승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주요국 정치 리스크 등은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요인 분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

< 수출가격지수와 국제유가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3대 유종 평균.

■ 시사점

현재 수출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둘째,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넷째, 근본적으로 수출 구조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요

○ (개요) 세계 수출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

- (한국) 한국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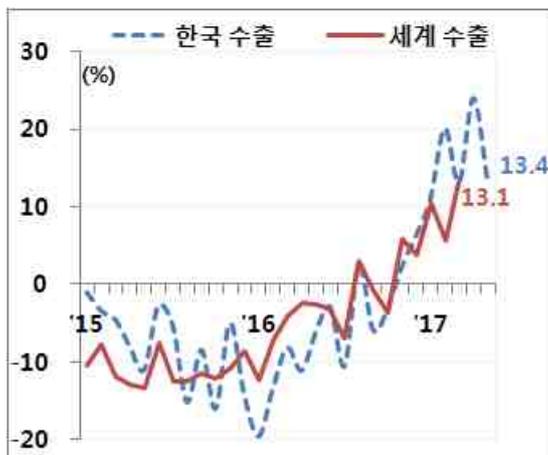
- 2017년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4%를 기록했으며, 5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달성
-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2.3% 증가를 시작으로 2017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 2년간의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

- (세계 및 주요 수출국)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 수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모습

- WTO가 발표하는 세계 수출은 2016년 11월 5.9% 증가한 이후 2017년 3월 13.1%까지 5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
-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역시 2017년 들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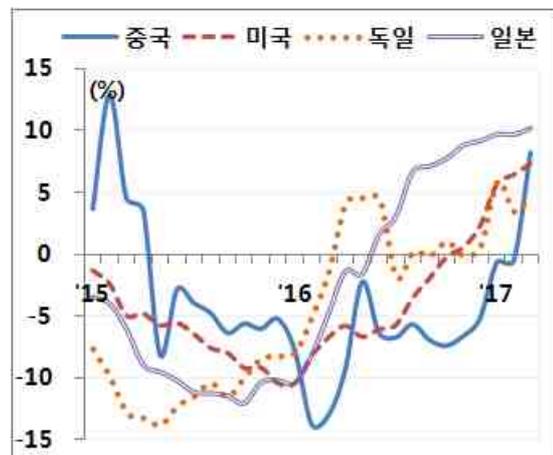
○ (연구목적)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진단해보기 위해 수출 증가를 가격 및 물량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한국 및 세계 수출 증감률(YoY%)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WTO 이용).
 주1) 전년동월비 기준.
 2) 달러 기준.

< 주요국 수출 증감률(YoY%)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WTO 이용).
 주1)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비 기준.
 2) 달러 기준.

2. 수출 회복의 가격 및 물량 효과 분석

○ (전체) 2017년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가격 상승 효과이며 물량 증가 효과 역시 수출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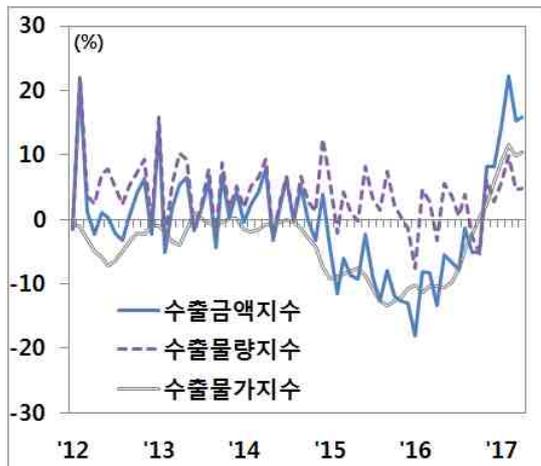
- 2016년 이후 수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수출금액지수로 살펴본 수출은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 추세
- 수출물가지수 역시 2016년 초 이후 수출금액지수와 유사한 추세로 상승중이며, 수출물량지수는 등락을 반복

- 최근 수출 증가는 가격 상승 효과와 물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

- 2017년 1~4월 현재 수출 증가율은 약 16.8%¹⁾로,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부분이 6.8%p,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10.1%p²⁾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60%,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약 40%로 분석

< 수출 금액 · 물량 · 물가 지수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 수출 증가율의 가격 · 물량 요인 분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

- 1) 한국은행의 수출금액지수로 살펴본 수출증가율이므로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증가율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2) 수출금액증가율을 가격변동요인+ 물량변동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

$$\left(\frac{EX' - EX}{EX} = \frac{\Delta P \times Q}{EX} + \frac{P' \times \Delta Q}{EX} \right)$$

단, 가격·물량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출물가지수가 아닌,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눈 물가지수를 사용.

○ (주력산업별 진단) 스마트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 수출이 회복세

- (자동차) 자동차 수출 증가는 주로 물량 증가 효과에 기인

- 지난 5년간 자동차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최근 2년간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물량 감소 때문
- 2017년 1~4월 자동차 수출은 약 3.8%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3.8%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0.3%p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8%에 불과한 반면,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약 92%로 압도적

- (일반기계) 일반 기계 수출 증가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

- 지난 5년간 일반 기계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최근 2년간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가격 하락이 지속된 가운데 물량도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
- 2017년 1~4월 일반기계 수출은 약 18.8%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18.8%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9.8%p에 달하며, 가격 요인은 오히려 수출증가율을 -1.1%p 감소
- 즉,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 감소 압력이 약 -6%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 압력이 약 106%로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자동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일반기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석유제품) 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주로 가격 상승 효과에 기인했으며 수출 물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음

- 지난 5년간 석유제품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격 하락 때문
- 2017년 1~4월 석유제품 수출은 약 46.6%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46.6%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0.4%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46.2%p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99%로 압도적이었으며, 물량 증가는 수출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석유화학) 석유화학 수출 증가는 가격 상승 효과와 물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

- 지난 5년간 석유화학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2015년에는 두자리수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세가 지속되며 2016년에는 성장을 회복
- 2017년 1~4월 석유화학 수출은 약 23.0%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23.0%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8.3%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4.7%p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64%에 달했지만,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도 약 36%를 기록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석유제품)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석유화학)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철강) 철강 수출 증가는 주로 가격 상승 효과에 기인했으며, 물량 증가 효과는 일부 발생

- 지난 5년간 철강³⁾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물량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하면서 수출이 부진
- 2017년 1~4월 철강 수출은 약 23.6%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23.6%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4.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8.9%p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80%로 압도적이었으며,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도 약 20%로 수출 증가를 견인

- (반도체) 반도체 수출 증가는 가격 상승 효과와 더불어 물량 증가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났기 때문

- 지난 5년간 반도체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지난 2년간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가격 하락 때문
- 2017년 1~4월 반도체 수출은 약 48.8%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48.8%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3.1%p
- 즉, 수출 증가율 중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약 73%로 압도적이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도 약 27%로 수출 증가를 견인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철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반도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3) 한국은행 수출가격지수 및 수출물량지수의 산업별 분류 중 '제1차금속제품'을 통해 분석. 여기에는 선철및조강, 철강1차제품 등이 포함되어 '철강'으로 표기함.

- (스마트폰) 스마트폰 수출 감소는 주로 물량 감소 효과에 기인

- 지난 5년간 스마트폰⁴⁾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에는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두자리수로 감소
- 2017년 1~4월 스마트폰 수출은 약 -39.6% 감소했는데, 수출감소율 -39.6% 중 물량 감소에 따른 감소폭이 -33.1%p, 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은 -6.5%p
- 즉, 수출 감소율 중 물량 감소로 인한 부분이 약 84%로 압도적이었으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분도 약 16%로 수출 감소에 기여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는 주로 단가 상승 효과에 기인

- 지난 5년간 디스플레이 수출 추세를 살펴본 결과,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가격 하락과 물량 감소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
- 2017년 1~4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약 31.9%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 31.9%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2%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30.7%p
-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96%로 압도적이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약 4%에 불과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스마트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디스플레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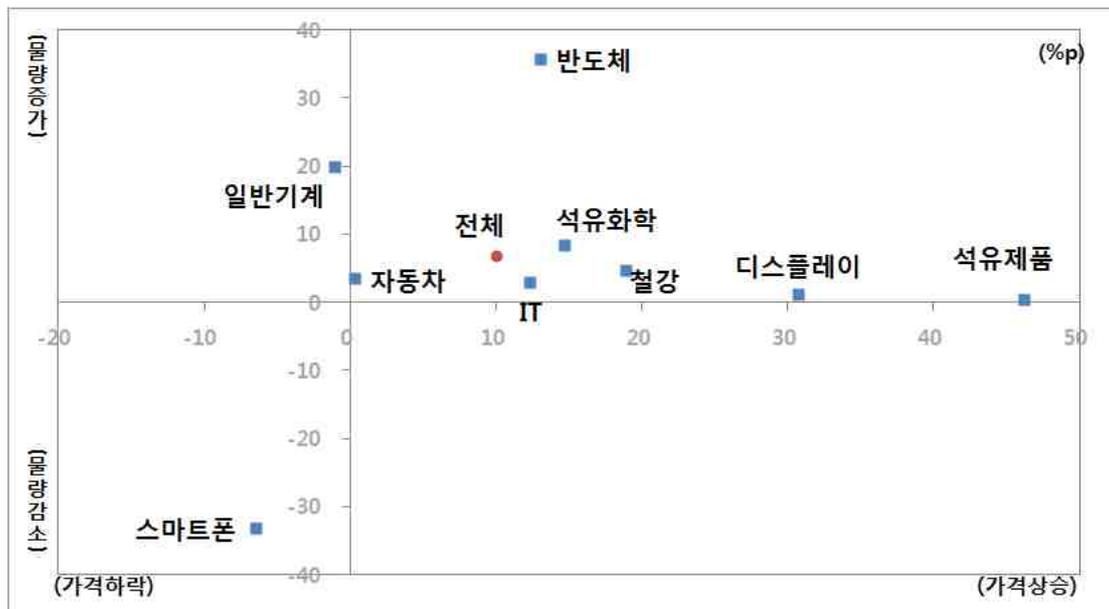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4) 한국은행 수출가격지수 및 수출물량지수의 산업별 분류 중 '이동전화기'를 통해 분석. 이동전화기는 엄밀히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나, 수출 대부분이 무선이동전화기임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으로 표기함.

- (주력산업 종합 진단) 스마트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
- (물량 증가 & 가격 상승 효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
- (가격 상승 효과) 석유제품, 디스플레이는 수출 물량 증가세는 정체된 가운데, 큰 폭의 수출 가격 상승이 수출을 견인
- (물량 증가 효과) 자동차, 일반기계는 수출 가격이 소폭 하락 혹은 불변인 가운데, 큰 폭의 수출 물량 증가가 수출을 견인
- (물량 감소 & 가격 하락 효과) 스마트폰은 수출 물량 감소와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진행중

< 업종별 최근 수출 추세의 가격 및 물량 증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7년 1~4월 기준.

3. 최근 수출 경기 회복의 배경 및 전망

○ (수출 회복 배경)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한 가운데,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수출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 상승세와 더불어 주력 산업들의 경기 개선세로 단가 상승 현상이 진행

- 한국 수출가격지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부터 동반 급락세를 보였음
- 국제유가가 2016년 11월 OPEC 감산결정 이후 상승세를 보이자, 한국 수출 가격 역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
-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산업은 국제 유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수출 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
- 반도체 산업의 시장 재편과 초과 수요,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공급과잉 완화,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상승세 등 업종별로도 수출 가격 상승 요인 존재
- 2017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원화 강세 현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단가를 일부 조정했을 가능성도 존재
-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가격과 국제유가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근 수출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신흥국 수입수요 확대로 수출물량 증가) 수출 물량 증가는 신흥국 경기가 호전되면서 신흥국 수입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 3개월 이동평균 지수를 통해 한국 수출물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 수출 물량은 2016년 4분기부터 상승세를 지속
- 한국 수출물량과 세계 경기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입물량지수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 수입물량은 급증하는 모습
- 즉, 2016년 4분기 이후 나타난 한국 수출물량 증가는 주로 신흥국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전망) 2017년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 종료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2017년 상반기 수출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과, 신흥국 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세 기록

- 그러나 유가 상승이 수요 회복보다는 OPEC의 감산 합의 영향이 크며, 미
국 셰일 오일의 증산 가능성으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어서
수출 단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 물량 증가세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가격 상승
요인을 압도할 정도의 강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관기준으로 본 5월 수출 증가율이 13.4%로 4월의 24.1% 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
화되는 모습 또한 하반기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근거

※ 대중 수출 증가율: '17.1월 13.5%, 2월 28.7%, 3월 11.9%, 4월 10.2%, 5월 7.5%

※ 대미 수출 증가율: '17.1월 -1.9%, 2월 1.7%, 3월 -5.2%, 4월 3.9%, 5월 -1.9%

- 전반적으로 수출은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가 종료되면서 상승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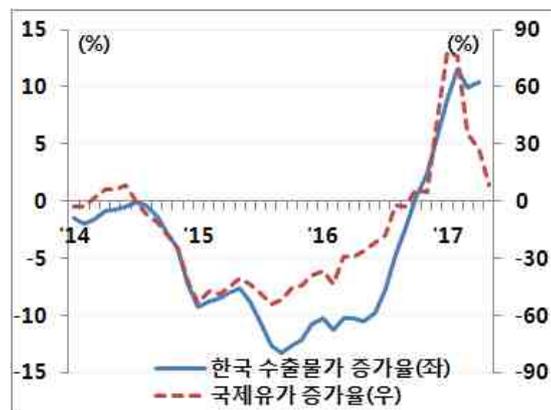
·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FTA 재협
상 가능성, 주요국 정치 리스크 등은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요인 분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자료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

<수출가격지수와 국제유가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3대 유종 평균.

4. 시사점

- 현재 수출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하여 미국 및 중국 정부와의 통상 외교 채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 무엇보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전체 수출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한한령(限韓令)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되 선제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미국 내에서 한-미간의 통상 현안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둘째,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 인도,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 신흥국의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집중 공략
-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대통령 탄핵 등 정치·경제적 변수가 많은 신흥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

셋째,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 미국, 중국은 수출 단일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두 시장을 합치면 약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두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는 한국 수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
-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기 있기 때문에 소비자 소비패턴 및 선호도 파악, 트렌드 변화, 산업 구조변화 분석 등 정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
- 중간재, 자본재 중심으로 편중된 대중국 수출 구조의 개선을 위해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소비재 시장에 대한 지역별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

넷째, 근본적으로 수출 구조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히트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친환경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현재 수출 구조를 더욱 고도화해야 함 **HRI**

백 다 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